

[시티 & 피처]



내 노래 어때요?

북구 시니어 합창단원 오디션

24일 광주시 북구향토문화센터 2층 연장에서 열린 '북구 시니어 합창단원 실기 오디션'에 참가한 응시자들이 평소獨立 아온 노래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북구 거주 만 56세 이상 남녀 81명이 응시한 이번 오디션에서는 60명이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27일 발표된다.

/위직경기자 jwki@kwangju.co.kr

시민단체 “U대회 재도전 공론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토론회 추진
2013 유치 활동 평가·재도전 여부 논의
朴시장 “찬·반 엇갈려 공론화 과정 필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다음 초순께 U대회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2013 U대회 유치활동에 대한 평가 ▲2015 U대회 재도전 여부 ▲시민단체의 U대회 유치 활동 참여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훈 사무처장은 “2013 하계U대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회 유치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U대회가 지역 혁신의 하나로 떠오른 만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우선 이번 주중 토론회 개최에 대한 소속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는 광주YMCA와 광주YWCA,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5개 단체 전 여부에 대한 결정은 7월까지는 지

가 기입돼 있다.

서 처장은 “시민단체가 굳이 U대회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U대회 재도전 여부는 이미 밝힌 대로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게 기본 입장”며 “재도전 의견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의 평가토론회를 포함 공론화과정을 거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U대회 유치에 재도전하면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특히 집행위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지 칼리안 위원장의 권고내지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재도전 여부에 대한 결정은 7월까지는 지

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광주가 재도전을 포기하면 또 다시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겠지만, 여론이 재도전 반대로 모아진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일부에서는 U대회와 다가을 시장 선거를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현재로서 그에 대한 욕심도 없고 선거를 의식한다면 오히려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2013년 대회 광주 유치 실패에는 유럽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두 번이나 탈락한 데시아가 ‘이번에 안되면 탈퇴하겠다’고 FISU 측을 압박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FISU 집행위원들이 광주의 탈락을 아쉽게 생각하며 우호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재도전에 나설 경우 지난번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과적차량 민관합동 단속

의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소장 성병경)는 과적차량 운행근跡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과 적차량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모든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으로 과적 여부가 확인되면 도로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적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 소방본부 태풍·집중호우 대비

재난 예상지역 65곳 집중관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예상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태풍 발생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더 늦어지는 등 장마전선의 북상과 이상기후에 의한 풍수해 관련 피해가 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예상지역 65개소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하

고, 중점 관리한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재난관련기관에 SMS(단문메시지) 경보를 신속히 통보해, 재난예상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시 소방본부는 태풍 재해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예방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주기자 ahj@kwangju.co.kr

◇풍수해 사고 예방요령

▲끊어진 전력선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는다.

▲비에 젖은 채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강풍 발생시 전력설비에 접촉 우려가 있는 파이프,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한다.

▲물 가까운 곳에는 트렁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산에서는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것을 삼가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북구 ‘동네 한바퀴 주부 순찰단’ 떴다

환경오염 감시·아동 안전 지킴이

787명…발족 한달만에 50건 적발

광주시 북구에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는 주부모임이 있다. 27일이면 발족 한 달을 맞는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이 그들이다. 이들은 아동 상대 범죄를 막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지역 과수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4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지역 전체 26개동에서 787명의 주부순찰단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안전을 위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주민 안전(도로 및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교육주변 교통안전시설 등)과 환경오염 유발(불법 쓰레기 투기·수질오염 등), 주민생활 불편(도로 적자

물 및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등), 아동지킴이(아동 범죄·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 분야 등이다.

각 동(洞) 주부들로 구성된 북구 과수꾼들은 밤낮을 거리 않고 오전 7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동네의 골목과 거리를 누비고 있다. 지난달 27일 첫 발을 내디딘 주부순찰단은 1인당 하루 평균 2시간씩 순찰을 돌며 깨끗한 동네, 범죄발생 제로인 동네,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감시망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50건.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쓰레기 무단투기 10건 ▲불법 광고물 설치 8건 ▲도로 및 보도 블록 파손 7건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설치 등 5건 등이다.

주부순찰단 이명순(45)씨는 “순찰활동을 하면서 주민 간 유대도 깊어진 것 같다”며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등에 관심을 갖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주민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배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

매월 넷째주 수요일 청사내 차없는 날

북구청 ‘一字 서예전’

에어컨은 실외온도 30도 넘을 때 가동

내달 9일까지 1층 갤러리

광주시 북구는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구청 1층 갤러리에서 광주·전남 유명 서예작가를 초대해 ‘일자(一字)’ 서예 기획전’을 연다.

이번 서예전에는 광주·전남 유명 서예작가 21명이 초대됐으며 글자 한자를 작품화 한 이들의 은은한 묵향의 작품 21점이 전시된다. 전시작품은 강형재 작가의 ‘부(無)’를 비롯한 나창호 작가의 ‘호(好), 류봉자 작가의 ‘각(覺), 전인식 작가의 ‘덕(德), 김용운 작가의 ‘녕(寧)’ 등 21점이다.

구는 특히 관광객들의 작품 이해를 돋우기 위해 한자로 된 어려운 서예작품의 내용을 해설하고 감상포인트 등을 담은 설명문을 작품 옆에 전시했다. 또 출품 서예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062-510-1215. /이종행 기자 glee@

광주시 고유가 극복 대책

날’로 정해 시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직원과 청사 입주자들의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그러나 민원인 차량과 장애인차, 임산부 및 유아 등승차, 업무용차, 특수 차량 등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건물·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책을 통해 연간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 구입시 경차·하이브리드카 비율을 현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경관조명 점등 시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4일 “초고우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월 1회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청사내 차 없는 날’로 지정, 승용차 5일제와 병행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5일을 첫 ‘차없는

이’에 따라 시